

EG, 호남 폭발사고로 수출량 감소

수입은 28.3% 급감해 공급 10.6% 줄어 ... NCC 가동률 저조가 원인

2003년 11월 EG(Ethylene Glycol) 생산량이 7만3750톤으로 전년동월대비 7.3% 증가했으나 수입이 28.3% 급감해 총 공급량이 10.6%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

11월 EG 생산량은 7만5231톤, 수입은 5만891톤으로 총 공급량이 12만6122톤으로 집계됐는데, 생산량은 전년동월대비 5087톤(7.3%) 증가한 반면 수입은 2만117톤(28.3%) 줄어 총 공급량이 1만5030톤(10.3%) 감소했다. 국내판매는 17.2%(8186톤) 늘어났고, 수출은 23.3%(5503톤) 감소했다.

EG 수출감소는 호남석유화학이 10월3일 HDPE 플랜트 폭발사고에 따라 NCC(Naphtha Cracking Center) 가동률을 조정했기 때문으로 에틸렌(Ethylene) 및 EG 생산량 감소로 수출물량 중 일부를 구매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. 10월 EG 생산량 급감(13.6%) 원인도 호남석유화학 폭발사고 여파로 파악된다.

국내 EG 수급현황

(단위: M/T, %)

| 구 분 | 2002 | 2002. 11 | 2003. 10 | 2003. 11 | 전년동월 | 전월대비 |
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생산능력 | 885,000 | 73,750 | 73,750 | 73,750 | 0.0 | 0.0 |
| 생 산 | 848,910 | 70,144 | 56,336 | 75,231 | 7.3 | 33.5 |
| 수 입 | 802,720 | 71,008 | 61,711 | 50,891 | ▽28.3 | ▽17.5 |
| 공급계 | 1,651,630 | 141,152 | 118,047 | 126,122 | ▽10.6 | 6.8 |
| 국내 판매 | 508,298 | 47,723 | 53,618 | 55,909 | 17.2 | 4.3 |
| 수 출 | 342,447 | 23,589 | 9,089 | 18,086 | ▽23.3 | 99.0 |
| 수요계 | 850,745 | 71,312 | 62,707 | 73,995 | 3.8 | 18.0 |
| 국내수요 | 1,311,017 | 118,731 | 115,329 | 106,890 | ▽10.0 | ▽7.3 |
| 재 고 | 14,514 | 18,568 | 20,894 | 19,115 | 2.9 | ▽8.5 |
| 가동률 | 95.9 | 95.1 | 76.4 | 102.0 | | |

11월 EG 수출은 중국이 1만1083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, 수출단가는 톤당 651달러로 10월 CFR Korea 753달러보다 102달러 낮게 거래됐다. 10월 평균 수출단가 및 수입단가는 각각 652달러, 715달러를 기록했다.

11월 EG 수입은 사우디가 2만9213톤(톤당 720달러), 미국 9245톤(701달러), 캐나다 8296톤(714달러), 브라질 995톤(678달러), 영국 3131톤(710달러)으로 총 5만980톤으로 집계됐다.

11월에는 휴비스, KP케미칼, SK케미칼, 새한, 동국무역 등 합성섬유 생산기업을 중심으로 수입됐고, EG 수출은 SK네트웍스 1만6745톤, 현대석유화학 7047톤, 현대종합상사 6003톤, 한국미쓰비시상사 4956톤 등을 기록했다. <김동민 조사연구원>

<Chemical Journal 2004/02/06>